

# '깜깜이 선거'에 광주 출마자들 속앓이

###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불구 선거구 확정 안돼 선거법 개정안 중 '225+75' 통과시 다양한 변수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선거구 확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깜깜이 선거'가 이어지면서 광주지역 일부 후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광주 동남을 선거구 출마를 시사한 김성환 전 광주 동구청장은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며칠 미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등 아직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전 구청장은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곧 통과될 것으로 보여 이를 지켜보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변동이 생기는지 보

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 동남을 선거구의 경우 지난 20대 총선 당시 남구 일부가 동구와 통합된 후 동남갑과 동남을로 나뉘었다.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 중 '225+75'가 통과될 경우 동구는 또다른 선거구와 합쳐져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동구로 편입된 일부 지역이 떨어져 나가고 북구갑으로 합쳐지는 등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동남갑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최영호 전 남구청장도 "선거구 확정안은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예비후보자 입



1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들이 나란히 서있다. 왼쪽부터 이남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하현식 자유한국당 광주시 서구갑 당협위원장, 김명진 가칭 대안신당 광주 서구갑 준비위원.

장에서는 하루라도 빠르게 선거구가 확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양하게 불거질 수 있는 혼선을 막고,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선거구 확정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 서구갑에 출마하겠다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명진 대안신당 광주 서구갑 준비위원은 "지역 정가에서는 광주 서구갑과 서구을이 통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확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만일에 대비해 주민들을 만나서라도 국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격양된 與 "헌정 초유의 국회 유린...황교안 고발 검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한국당 지지세력의 국회 농성 사태와 관련하여 "황교안 대표의 극우 공안정치가 국회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다"며,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의회주의 파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유린을 묵과할 수 없다"며 격양된 민주당은 황 대표 고발을 비롯해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날 한국당은 국회 본관 앞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모인 한국당 당원과 우파 성향 지지자들이 국회 본청 난입을 시도하며 폭

력 사태가 불거졌다. 황교안 대표는 직접 시위현장을 찾아 "여러분의 분노가 국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여러분이 승리했다"고 말해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날 사건과 직접적으로 혹은 관련이 돼있는 황교안 대표를 고발해야 한다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강한 (민주당 지도부) 의견

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행정안전위원회나 지도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울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황교안 고발)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고 이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행안위 전체회의에 경찰청장을 불러 이번 폭력 사태를 다루는 안도 검토 중이다.

### 한국당, 우파 성향 지지자들과 국회 난입 시도 폭력 사태 "극우 공안정치가 아비규환 만들어...나치와 다를바 없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국회 유린"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12월16일은 국회 침탈의 날이었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의회주의 파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분개했다.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한 엄중한 수사도 경찰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극우 공안정치가 우리 국회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다"고 분

노를 숨기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격양된 목소리로 "한국당 지지자들은 물론 정채불명의 사람들이 성조기를 휘날리며 대한민국 국회를 점거하고 우리 민주당 설훈 의원을 폭행하는 광경을 보았다"며 "홍영표 전 원내대표도 수십 명의 정채 모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갖은 욕설과 모욕을 당해야만 했다"고 격분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헌정사상 초유의 국회 난동사태가 벌어졌다. 정상적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치적 테러"라며

"나치 돌격대의 민주주의 파괴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선 "황 대표가 이들 극우세력의 폭력난동을 사실상 주동한 점 역시 묵과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과 총리까지 지낸 당대표가 법과 질서를 훼손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법천지로 전락시키는 데 앞장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1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국회의장·당대표 거친 'Mr.스마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20대 국회 전반기(2년)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69·서울 중로)을 지명했다.

20대 국회 전반기(2년)에서 국회의장을 역임하고 내년 총선에서 종로 출마를 준비 중이었던 정세균은 수락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

정 후보자는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상용그룹에 입사해 상무이사까지 지내는 등 17년간 샐러리맨의 길을 걸었다.

그런 그가 정치권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은 상용그룹에서 미국 주재원으로 일하던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의 정계 입문 제안 때문이었다.

1995년 김 전 대통령의 특별



선정되는 신사적인 의원에게 수여하는 '백봉신사상'을 여섯차례 받아 정치권에서 '미스터 젠틀맨'·'미스터 스마일'과 같은 별칭을 얻었다.

20·30세대에게는 SNS 속 탈권위주의적 모습으로 '균블리(정세균+러블리)'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상용그룹에서의 실물경제 현

### 입법부 수장서 행정부 2인자로...6선 국회의원

### '균블리' 등 애칭...온화한 성품·탈권위주의의 강점

보좌관을 지낸 정 후보자는 1996년 16대 총선 때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지역을 시작으로 이 지역에서 18대까지 내리 4선 국회의원을 했다.

19대 때는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로 지역구를 옮겨 5선에 성공했다. 20대 총선에서도 당시 여권 잠룡이던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을 꺾으며 6선에 올랐다.

그는 남다른 리더십을 보여주며 여러 차례 당과 정부, 국회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당에서는 임시의장을 포함해 열린우리당 의장 두 번, 통합민주당 대표 한 번 등 총 세 번의 당대표를 지냈다. 20대 국회에 선 국회의장직까지 거머쥐며 화려하게 재도약했다.

정 후보자는 의장에 취임하자마자 국회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을 관철하고 인기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처리했다.

정 후보자의 강점으로는 '온화하고 탈권위적인 성품'과 '경제 전문성'이 꼽힌다. 국회 출입 기자들의 투표로

장 경험과 산자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쌓은 정책 경험 때문에 '경제 정책통'으로 불리기도 하는 정 후보자는 한일관계가 위기에 빠져들자 민주당의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의전 서열 2위의 국회의장이 총리가 된 사례가 없다는 점은 총리 지명 이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기상황에서 '소방수'로는 그만한 인물이 없다고 지인들은 입을 모은다.

- 4전북 진안(99) 4전주신흥고 4고려대 법대 4미국 페퍼다인대 경영학 석사 415·16·17·18·19·20대 의원 4연청중앙회장 4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4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당의장 4산업자원부장관 4통합민주당 대표 4민주당 최고위원 4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 4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4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